

02

동아시아 국제 관계와 화이유교규범의 변화

_조선과 17세기 명·청교체기의 조공체계

■ 신봉수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베이징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요 논저

「서양정치사상 중심의 정치발전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2008)

「국제규범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사회구성」(2007)

「중국적 규범의 모색과 한계」(2006)

Contents

- 1 문제제기
- 2 규범의 변화와 정통성
- 3 유교와 조공체계
- 4 조선과 명·청교체기의 조공체계
- 5 맺음말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은 생성, 확산, 소멸이라는 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다. 규범이 이처럼 변화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적자생존이라는 진화론적 관점과 공유된 도덕적 평가기준에 기초한 정통성이론이 그것이다. 진화론적 관점은 유전자의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을 규범의 변화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정통성이론은 공유된 도덕적 평가기준이 정통성을 상실할 경우 규범 변화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유교의 화이규범에 기초한 조공체계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 글은 규범의 변화와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이론적 성과를 토대로 화이유교 규범의 변화가 조공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17세기 명·청교체기의 조공체계를 분석하여 조선에서 나타난 화이유교규범의 변화와 그 원인을 정통성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주제어

규범, 조공체계, 화이사상, 천하관, 중국, 조선

1. 문제제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4개국 학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관계를 규정했던 조공체계에 대해 한국 인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조선은 조공체계를 적극적으로 체계화한 대표적인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²⁾ 왜 오늘날 한국 인들은 당시의 조공체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인가?

이런 물음은 규범(norm)의 변화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정당화됐던 규범 혹은 제도³⁾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 더 이상 존속

1) Peter Hays Gries, Qingmin Zhang, Yasuki Masui and Yong Wook Lee, "Historical Beliefs and the Perception of Threat in Northeast Asia: Colonialism, the Tribute System, and China-Japan-Korea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9, No.2(2009), pp.245~265. 이 연구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이들 4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2) Hae-jong Chun,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in the Ch'ing Period", J. K. Fairbank(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90. 조선이 조공체계를 수용한 배경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 왔는데, 대체적으로 규범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다음을 참조, 최연식, "조공체제의 변동과 조선시대 중화-사대관념의 굴절: 변화 속의 지속",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1호(2007). 후자는 다음을 참조. 피터윤,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연구』 제45권 3호(2002).

하지 못한 사례들은 국제관계의 역사에서 종종 발견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식민주의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 경영에 경쟁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식민지 경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 외에도, 자신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제도들을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 전파하여 이들 지역의 국가들을 문명화(근대화)시킨다는 유럽국가들의 공유된 도덕적 평가기준에 기초하고 있었다.⁴⁾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아시아-아프리카지역에 신생 독립국가들이 생겨나고, 유럽국가에 국한됐던 주권에 기초한 민족자결주의가 이들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식민주의는 점차 도태하게 됐다.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인들이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규정했던 조공체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이런 규범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조공체계를 뒷받침했던 화이(華夷)유교규범에 의해 작동했지만, 오늘날에는 주권(sovereignty)이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선이 화이유교규범을 내재화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조공체계가 오늘날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원인은 근대국가 형성 이후 주권 규범이 크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침해당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런 경험은 조공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계기로 작용

3) 핀네모어는 규범(norm)과 제도(institution)를 개념적으로 구분해 사용하는데, 전자는 하나의 행위기준, 후자는 행위규칙들이 상호 연계되어 제도화된 방식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2, No.4(1998), p.891. 이 글에서는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규범으로 통일해 사용한다.

4) Martha Finnemore, *The Purpose of Intervention: Changing beliefs about the Use of For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 pp.70~71.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국제관계를 규정했던 규범이 생성 혹은 소멸되는 현상을 분석하는 규범 변화에 관한 연구는 최근 국제관계의 주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⁵⁾ 그리고 이런 규범 변화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규범 변화의 요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규범 변화의 요인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적자생존이라는 진화론적 관점과 공유된 도덕적 평가기준에 기초한 정통성이론이 그것이다.⁶⁾ 진화론적 관점은 유전자의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을 규범의 변화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정통성이론은 공유된 도덕적 평가기준이 정통성을 상실할 경우 규범 변화가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규범의 변화와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이런 연구 흐름에 기초하여, 과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규정했던 조공체계를 분석하고 화이유교 규범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7세기 명·청교체기 조선에서 나타난 화이유교규범의 변화와 그 변화 원인을 정통성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조공체계는 유교의 천하관에서 비롯된 화이사상(華夷思想)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화이사상은 만주족(夷)이 세운 청

5) 규범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글을 참조, Wayne Sandholtz, "Dynamics of International Norm Change: Rules against Wartime Plunder",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4, No.1(2008); Ann Florini,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Norm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40(1996), pp.363~389; 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1998), pp.887~917.

6) 진화론적 관점은 다음 글을 참조, Robert Axelrod, "An Evolutionary Approach to Norm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80, No. 4(1986); Ann Florini,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Norm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0, No.3(1996), pp.363~389. 정통성이론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Ian Hurd, "Legitimacy and Authority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2(1999); 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1998), pp.887~917.

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정통성을 상실하게 된다. 다시 말해 오랑캐인 청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동아시아 조공체계에서 화이규범은 작동하지 않게 됐으며, 이로 인해 조선과 청의 조공관계는 형식적, 실리적으로 변화하게 됐다. 다만 조선은 스스로를 중화(中華)로 자처하면서 청을 오랑캐로 인식하려 했으며, 이런 노력은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⁷⁾

조공체계에 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권력관계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조공체계를 뒷받침했던 이념적 배경인 유교의 규범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⁸⁾ 이로 인해 조공체계는 역사적 관점을 상실한 채 단편적으로 분석돼 왔다. 특히 조선과 청의 조공체계에 대한 연구는 화이규범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정치, 안보, 경제와 같은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⁹⁾ 그러나 이런 실용주의적 관점은 조공체계의 규범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조선과 청의 조공체계를 다른 시기와 달리 특수한 사례로 분석하여 조공체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가볍게 다루고 있다.¹⁰⁾ 특히 조공체계는 중국의 문화적 우월

7) 이런 조선의 노력은 청의 쇄국정책과 목인으로 인해 일정한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라이트(M. Wright)는 조선은 청에 비해 훨씬 쇄국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한다. Mary C. Wright, "Adaptability of Ch'ing Diplomacy: The Case of Kore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17, No.3(1958). 조선의 이런 태도는 화이규범을 국내규범으로 지속적으로 견지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실제, 화이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은 명의 신종과 의종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대보단(大報壇)을 설치하는 등의 결실을 보기도 했다.

8) 최연식, "조공체계의 변동과 조선시대 중화-사대관념의 굴절: 변화 속의 지속",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1호(2007). 최연식은 조공체계를 유교에 대한 조선의 규범적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조선과 청의 조공체계에 작동했던 국제규범으로서 유교의 역할 변화를 놓치고 있다.

9) 정치적 측면에서 조공관계를 분석한 글은 남궁곤, "동아시아 평화체계에 관한 연구: 조선사행록을 통해 본 18세기 조공체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3호(1999); 경제적 측면에서 조공관계를 분석한 글은 浜下武志, 『近代中國の國際契機』, 朱蒞貴, 歐陽非 譯, 『近代中國의國際契機: 朝貢貿易體系與近代亞洲貿易圈』(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참조.

성, 안보라는 정치적 목적, 조공무역의 상업적 특징,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매개 등과 같이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¹⁾ 이를 감안할 때 조선과 청의 조공체계를 정치 또는 경제와 같은 특정한 역할을 통해 분석하게 되면, 단편적이면서도 역사적인 맥락을 놓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선과 청의 조공체계를 화이유교규범의 변화를 통해 설명한다.

2. 규범의 변화와 정통성

규범은 규칙성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성을 강조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르다.¹²⁾ 규범의 규칙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규범을 “규칙으로서 행위자가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행위자들의 적절한 행위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¹³⁾ 전자와 달리 후자는 “적절한 행위기준”으로 행위자들의 법적 또는 도덕적 정통성(legitimacy)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플로리니(A. Florini)는 규범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규범에 정통성이 내재돼

10) Sandholtz는 규범의 변화가 순환적이고, 변증법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Wayne Sandholtz(2008), p.124.

11) J. K. Fairbank and S. Y. Teng, “On the Ch'ing Tributary System”,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6, No. 2(1941).

12) 신봉수, “중국적 규범(norm)의 모색과 한계”, 『국제정치논총』 제46집 4호(2006). 커젠스타인은 규범을 “행위자가 주어진 정체성을 기반으로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집단적인 기대”라고 정의한다. Peter J. Katzenstein(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Chinese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 5.

13) Janice Thomson, “Norm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Conceptu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Tensions*, Vol. 23, No. 1(1993), p. 81; 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1998), pp. 891~893.

있기 때문에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¹⁴⁾ 또한 이들은 규범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규범들 간의 경쟁, 규범과 현실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⁵⁾ 실제, 국제관계의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도덕적 평가기준은 역사적 환경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규범 연구자들은 역사적 관점을 견지한 채 규범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 규범연구자인 핀네모어(M. Finnemore)는 규범의 생성과 소멸을 ‘규범의 등장, 규범의 확산, 규범의 내재화’라는 세 단계의 순환구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먼저 새로운 규범의 등장은 규범의 기획자가 조직화된 발판(platform)을 토대로 자신이 기획한 규범을 다른 행위자가 받아들여도록 설득을 통해 다른 규범과 경쟁을 벌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새롭게 등장한 규범은 반드시 기존의 규범과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규범이 갖는 특징은 중요한 경쟁수단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규범의 확산은 전환점을 거치게 되는데, 즉 주요한 국가 혹은 조직의 지도자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규범들을 수용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확산된다. 이러한 확산단계에서는 점차 많은 국가와 조직들이 새로운 규범을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국내의 정치적 압력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정치지도자들이 사회화를 통해 수용하는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규범이 내재화되는 시기로, 이 단계에 이르면 이미 새로운 규범은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것으로 이들 규범의 특징들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게 된다.¹⁶⁾

14) Ann Florini,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Norms", p.365.

15) Wayne Sandholtz, "Dynamics of International Norm Change: Rules against Wartime Plunder", pp.101~103.

16) Finnemore and Sikkink(1998), pp.895~905.

새로운 규범이 다른 규범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내재화 단계까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행위자들에 의해 공유된 도덕적 평가기준이다.¹⁷⁾ 나델만(E. Nadelmann)은 특정 규범이 보편적인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적인 규범 기획자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도덕적 평가기준에 대한 공유는 과거에는 물론 미래에도 규범의 내재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⁸⁾ 실제, 규범은 억압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지켜지기보다는 행위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믿는 당위성 또는 정통성에 기대고 있다.¹⁹⁾ 따라서 만약 행위자들이 기존 규범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해당 규범이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규범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규범은 단순히 행위의 규칙성을 설명하기보다 그러한 규칙성의 배경이 된 공유된 도덕적 평가기준이 중요하며, 이런 기준은 다른 규범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 된다.

조선은 14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유교적 천하관에 기초한 화이사상을 규범으로 수용했다. 비록 화이사상은 선진(先秦)시대 이전에는 중국 내부의 권력관계에 불과했지만, 진(秦)과 한(漢)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대됐다.²⁰⁾ 조선이 조공체계를 본격적으로 수용한 시기와 원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화이사상에 기초해 조공체계를 규범으

17) 핀네모어는 규범이 내재화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정통성(legitimation), 우월성(prominence), 규범의 내재적 특징(intrinsic characteristics of the norm) 등 세 가지를 꼽고 있다. Finnemore and Sikkink(1998), pp.906~909.

18) Ethan A. Nadelmann, "Global Prohibition Regimes: the Evolution of Norms in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4, No.4(1990), pp.481~484.

19) Ian Hurd(1999), p.379.

20) 최연식(2007), p.105.

로 내재화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다. 실제, 고려를 멸하고 조선을 건국한 이들은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화이규범을 내재화하여 명(明)을 중주국으로 하는 조공체계를 적극적으로 체계화하게 된다.

3. 유교와 조공체계

(1) 유교의 천하관과 화이사상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질서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유교의 위계적 질서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²¹⁾ 이들은 유교적 질서의식이 서양의 근대적 국제질서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이 근대 동아시아의 외교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유교적 세계관의 발단은 천하(天下)관에서 찾을 수 있다.

유교의 천하관은 중국의 고대국가인 은(殷)왕조에서부터 출발해 주(周)왕조에서 체계화되고 있다. 천하는 지리적인 개념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데, 고대국가의 정치, 군사적인 능력을 감안할 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허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천하관은 권력 또는 문화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그 영향권에 있는 핵심지역과 그 변경지역을 ‘안(內)’과 ‘밖(外)’으로 구분하여 통치구역을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²²⁾ 또한 이런 천하관이 갖는 경계의 구분은 문화적 우월성에

21) Key-Huik Kim,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World Order: 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김용구,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예와 서양 공법』(서울: 나남, 1997); 김성배, "19세기 조선의 유교와 근대국제정치: 윤양 김윤식의 경우", 『국제정치논총』 제47집 2호(2007).

22) 干春松, "世界和諧之愿景: '中庸' 與儒家的'天下'觀念", 『學術月刊』第40卷9月號(2008), p. 50.

기초하여 중국 중심의 천하관을 형성하는 토대가 됐다. 즉 중국의 왕은 천명을 받은 천자로서 천하를 통치하고, 그 통치구역은 천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어 천자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은 내복(內服),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지역은 외복(外服), 그리고 내복과 외복 지역을 둘러싼 이적(夷狄)과 만이(蠻夷)의 오랑캐지역으로 구분된다.²³⁾

천하관은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하나는 오랑캐를 철저히 배격하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존왕양이(尊王攘夷)사상이며, 다른 하나는 오랑캐를 왕의 선진화된 문화로 교화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대일통(大一統)의 왕화(王化)사상이다. 전자는 춘추전국시대에 들어와 중화지역에 대한 오랑캐의 침략이 빈번해지면서 형성되는데, 주왕조의 제환공(齊桓公)은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응징하는 것을 패자의 임무로 선언하고, 주변의 제후 국가들을 규합하여 이들을 변방으로 내모는 존왕양이의 사상을 기치로 삼고 있다. 공자도 이런 당시의 통치이데올로기를 반영하여 “관중(管仲)은 제환공을 도와 패자가 되게 하고, 주왕실을 높이고 천하를 통일하였으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다. 만약 관중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이미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⁴⁾

춘추전국시대의 이런 존왕양이 사상은 한(漢)대에 와서는 대일통의

23) 이춘식, 『중화사상의 이해』(서울: 신서원, 2002), p.224. 하늘의 아들인 주나라 왕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오복 혹은 육복, 혹은 구복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국어(國語)』에 기록된 오복(五服)에 따르면, 진복(甸服), 후복(侯服), 빈복(賓服), 요복(要服), 황복(荒服) 등의 오복 지역 가운데 요복과 황복은 오랑캐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오복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李云泉, 『朝貢制度史論: 中國古代對外關係體制研究』(北京: 新華出版社, 2004), pp. 4~9.

24) 巴文澤, 雷瑜新, “孔子, 孟子與荀子對管子評價之比較辨析”, 『理論月刊』第12期(2008).

왕화사상으로 전환 발전되고 있는데, 즉 중화문명으로 오랑캐를 변화시키는 용하변이(用夏變夷)가 그것이다. 자오전이에(趙震野)는 용하변이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낙후된 소수민족들을 개조하고, 이들 소수민족인 이(夷)가 화(華)로 변화하는 것을 고무하는 것”²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용하변이는 열등한 민족들을 중화문명으로 개조하는 것이 된다. 루징(盧璟)도 이런 문화적 관점에서 화이사상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종족 또는 인종적인 차원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원에서 강조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⁶⁾

천하관에 기초하여 인종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중국의 이런 세계질서 의식은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근대국가를 단위로 한 서양의 세계관과 종종 비교된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자오팅양(趙汀陽)에 따르면, 천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개념 정의할 수 있는데, 첫째, 지리적으로 하늘 아래의 모든 것, 즉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계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²⁷⁾ 그리고 이런 천하관에 기초해 그는 서양의 세계질서에 관한 관점인 민족국가 단위에서 벗어나 세계적 관점에

25) 趙震野, 王俊斌, “中國 古代 ‘大一統’ 的文化戰略思維”, 『山西師大學報』 第36卷 第3期(2009).
 26) 盧璟, “華夷觀念與文化優勢”, 『中國青年政治學院學報』 第5期(2008), p. 67; 천하관에 내재된 존왕양이와 왕화사상은 맹자의 왕도(王道) 정치사상이 형성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중국의 대외전략을 패권(霸權)과 왕권(王權)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전략 문화를 통해 분석한 글은 다음을 참조.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27) 趙汀陽, 『天下體系: 世界制度哲學導論』(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5). 자오팅양은 천하관이 화이사상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천하관이 성행할 때 화이관념은 약화됐으며, 화이관념이 성행할 때는 천하관이 약화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천하관과 화이관념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趙汀陽, “天下體系的一個簡要表述”,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2008), p. 58.

서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의 이런 관점은 위계적 사유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²⁸⁾ 즉 당면한 세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보다 질서, 법보다 윤리, 민주주의보다 엘리트에 의한 통치와 같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top-down)’ 문제해결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명화된 중화제국의 자원이 주변의 오랑캐 국가들에게 전파되는 조공체계는 호혜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유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²⁹⁾

이러한 천하관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관계에 대한 중국의 사유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철저하게 위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계적 질서의식은 인종적 특징에 기초하여 문화적 우월감으로 발전했는데,³⁰⁾ 이는 화이사상이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³¹⁾ 즉 중국의 왕이 직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문화적으로 우월한 중화지역과 중화지역의 문화를 전파하여 교화해야 될 이적과 만이의 오랑캐지역은 철저하게 위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실제, 허신화(何新華)는 천하관의 공간개념에는 상하존비(上下尊卑)라는 위계의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화하(華夏)를 중심으로 동이(東夷)와 남만(南蠻), 서융(西戎), 북적

28) Feng Zhang, “The Tianxia System: World Order in a Chinese Utopia”, *Global Asia*, Vol. 4, No. 4(2010). http://www.globalasia.org/V4N4_Winter_2010/Feng_Zhang.html(검색일: 2010년 1월 25일).

29) William A. Callahan, “Chinese Visions of World Order: Post-hegemonic or a New Hegemon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0(2008), p. 755.

30) 盧璟, “華夷觀念與文化優勢”, 『中國青年政治學院學報』第5期(2008). 한편, 김봉진은 화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문명의 있고 없음, 많고 적음”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힘에 의한 지배 - 복종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화이질서는 문명적 측면에서 위계적이지만, 불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자격, 능력 등에 맞게 나누어 갖는 균분(均分)적인 관계라고 주장한다. 김봉진, “화이질서의 재해석”, 『전통과 현대』 3호(겨울, 1997), pp. 260~262.

31) 劉澤華, 『中國傳統政治哲學與社會整合』(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 pp. 128~145.

(北狄)이 둘러싸고 있으며, 중화의 영향이 중심으로부터 확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³²⁾

이런 유교의 천하관에 기초한 화이사상은 국제관계, 특히 조선과 명·청의 관계를 규정짓는 규범으로서 작동하게 되는데, 이런 규범이 체계화된 것이 조공체계다.

(2) 조공체계

조공체계는 중국의 천하관에 기초하여 형성 발전된 것으로 그 초기 형태는 성읍국가였던 은왕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춘식에 따르면, 은왕조는 내복 지역과 외복지역으로 구분되어, 내복은 은의 수도였던 상(商)읍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외복은 은왕의 군사적 영도 아래 연맹을 형성했던 다른 성씨부족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이런 외복지역의 부족국가들은 군사적으로 강한 상족과 연맹을 형성하고, 연맹에 대한 대가로 조근과 공납을 행하고, 은왕실의 제사를 모시기도 했다.³³⁾

은왕조에서 나타나는 조공체계의 이런 초기 형태는 주왕조에 이르러 이념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즉 유교적 질서가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된 주왕조는 천하관에 기초한 화이사상이 통치이데올로기로 작동하게 되는데, 조공체계는 이런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제도적 형태를 갖추게 된다.³⁴⁾ 실제, 주나라의 왕은 하늘의 아들인 천자이며, 천자는 이(夷, 오랑캐)

32) 何新華, “試析古代中國的天下觀”, 『東南亞研究』 第1期(2006), p. 53.

33) 이춘식, 『중화사상의 이해』(서울: 신서원, 2002), pp. 219~232.

34) 簡軍波, “中華朝貢體系: 觀念結構與功能”, 『國際政治研究』 第1期(2009); Mark Mancall, “The Ch'ing Tribute System: An Interpretive Essay”, J. K. Fairbank(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가 아닌 화(華, 한족)만이 될 수 있으며, 천자는 선진문명을 가진 화를 통해 이를 교화해야 한다는 것이 천하관에 기초한 화이사상의 핵심이다.³⁵⁾ 따라서 천자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정도에 따라 천하는 ‘안’과 ‘밖’으로 구분되며, ‘밖’에 있는 지역은 ‘안’에 대해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있다.

주왕조의 오복과 구복제도는 초기 형태의 조공체계가 화이사상이라는 이념적 토대를 마련하면서 체계화되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복제도는 주왕이 통치하는 범위의 멀고 가까움, 그리고 봉건제후의 등급에 따라 전복(甸服), 후복(侯服), 빈복(賓服), 요복(要服), 황복(荒服) 등의 오복지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을 다스리는 봉건 제후들은 화 혹은 이를 막론하고, 군신의 예를 의미하는 조공을 행하도록 했다. 또한 구복제도는 오복의 구분이 좀 더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천자가 직접 통치하는 왕기(王畿)를 중심으로, 후복(侯服), 전복(甸服), 남복(男服), 채복(采服), 위복(衛服), 만복(蠻服), 이복(夷服), 진복(鎮服), 번복(藩服)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³⁶⁾ 이런 오복과 구복제도의 확립으로 인해 조공체계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³⁷⁾ 중화의 문화적 우월성에 기초한 화이사상은 중화문명의 영향권 ‘밖’에 있는 오랑캐를 때로는 무력으로 진압(존왕양이)하거나 때로는 중화의 문화로 교화해야 할 대상(왕화)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런 화이사상에 내재된 두 가지 전략적 수단은 조공체계가 제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秦)왕조 시기에는 변방에 대한 중앙의

35) 이춘식, 『중화사상』(서울: 교보문고, 1998), pp.304~319.

36) 何新華, 試析古代中國的天下觀, 『東南亞研究』第1期(2006).

37) 李云泉, “朝貢制度的理論淵源與時代特徵”, 『中國邊疆史地研究』第16卷 第3期(2006).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내적인 차원에서 조공관계는 퇴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런 진의 통일국가는 조공체계가 한(漢)왕조에 이르러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실제, 한왕조에서는 유교가 통치이데올로기로 정립되면서 화이사상은 급속도로 확산되는데, 이런 확산은 중국을 중주국으로 주변 국가들을 종속국으로 하는 국제관계에 기초한 조공체계를 구체화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³⁸⁾

이런 조공체계는 당(唐)대에 조공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독립기관인 홍려사(鴻臚寺)가 설치되고, 이 외에도 예부에는 조공을 수납하고 처리하는 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주객사(主客司), 병부에는 오랑캐사절의 지도 제작 업무를 맡은 직방사(職方司)가 각각 독립적인 직능을 맡게 되면서 제도적인 형태를 완비하게 된다.

송(宋)대와 원(元)대에는 이런 제도가 한층 정비된 형태를 띠게 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송대에는 홍려사가 예부에 편입되면서 조공무역을 전담하고, 연해 도시지역에 조공사절들을 접대하는 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원대에는 수도인 대도(大都, 지금의 베이징)에도 조공사절단을 위한 숙소인 회이관(會夷館)이 건설되고, 이곳에서 조공국가들의 풍속과 물품, 중국과의 지리적 관계 등을 기록하는 업무를 주관하게 된다. 이후 명대에는 조공사절을 위장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 감합(勘合)제도를 시행하는 등 이 시기에 조공체계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로써 조공체계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규정짓는 체계로 자리 잡게 되는데,³⁹⁾ 특히 조선과 명의

38) 簡軍波(2009), p.134.

39) 簡軍波(2009), pp.133~135; 何芳川, “華夷秩序論”, 『北京大學學報』第35卷 第6期(1998).

관계는 조공체계가 전형적으로 관철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⁴⁰⁾

이 시기에 조선이 적극적으로 조공체계를 체계화하게 된 배경에는 유교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의 송대와 명대에 걸쳐 발전했던 신유교(성리학)를 수용했던 조선은 유교의 천하관에 기초한 화이사상을 받아들여 조공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게 된다. 이는 송대에 이르러 조공체계가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명·청교체기에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규정했던 조공체계에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이다. 즉 조선은 중국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청에 대해 조공하기를 거부하고, 명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조선은 청과 두 차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즉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후에 조선은 청과의 조공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조공체계는 더 이상 화이유교규범에 의해 작동되지 않고, 형식적, 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조선은 만주족이 통치하는 중국을 대신해 중화를 자청하게 된다.⁴¹⁾ 조선과 청의 조공관계를 분석했던 전해종도 이 시기 조공관계는 다른 시기와 비교해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²⁾

이런 현상의 발생은 조선과 청의 관계를 규정짓는 화이유교규범이 정통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이 오랑캐에 의해 통치되면서 조공체계를 유지했던 화이규범은 더 이상 도덕적 정당성을 공유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전쟁이라는 무력을 통해 조공관계가 유지되면서 우월한 문화의식에 기초한 화이유교규범은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40) 전해종, “韓中朝貢關係考”, 『동양사학연구』 제1집 제1편(1966), p.25; J.K.Fairbank and S.Y.Teng(1941).

41) 정옥자, 『조선 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서울: 일지사, 1998),

42) 전해종, “청대 한중조공관계 종고”, 『동양사학연구』 제1집(1966), pp.280-281.

4. 조선과 명·청교체기의 조공체계

(1) 화이유교규범의 수용

조선의 건국은 왕조의 교체라는 권력관계를 넘어 신유교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조선의 건국을 주도한 이들은 유교를 내재화하여 국교로 삼고 있는데, 이는 규범이 생성되고 확산되는 것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조선이 받아들인 신유교 가운데서도 화이규범은 이 시기 조공체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됐다.

화이사상이 조선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강상규는 ‘조선’이라는 국호의 선정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 건국을 주도한 인사들은 명의 황제로부터 조선이라는 국호의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기원이 단군조선이 아닌 기자조선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근거로 강상규는 조선의 문화적 자존의식을 명과 대등한 관계로 규정하기보다 중화문명의 권위에 기대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그는 조선이 유교의 화이규범을 수용하게 된 배경과 관련, 권력의 위계질서에 편입해 대외적 안보와 대내적 안정을 구가한다는 현실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중화질서를 문명의 기준으로 삼아 화이사상이 내포한 보편성과 포용성에 기초한 문명의 위계질서에 편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⁴³⁾

실제 정도전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명의 황제가 “오직 조선이라는 이름이 아름답다울 뿐 아니라 그 유래가 구원하다. 이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리면 후손이 길이 창성하리라”고 한 내용을 적고 있다.

43) 강상규, “조선왕권의 공간과 유교적 정치지형의 탄생”, 『에산학보』 제29집(2003), p.25, p.33.

또 그는 “기자는 무왕에게 홍범(洪範)을 설명하고 홍범의 뜻을 부연하여 8조(條)의 교(敎)를 지어서 국중에 실시하니, 정치와 교화가 성하게 행해지고 풍속이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러므로 조선이란 이름이 천하 후세에 이처럼 알려지게 된 것이다”라고 조선이라는 국호가 가진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또 그는 “이제 조선이라는 아름다운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으니, 기자의 선정(善政) 또한 당연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 명(明)천자의 덕도 주무(周武)왕에게 부끄러울 게 없거니와, 전하의 덕 또한 어찌 기자에게 부끄러울 게 있겠는가? 장차 홍범의 학과 8조의 교가 금일에 다시 시행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공자가 나는 동주(東周)의 인정(仁政)을 만들겠다.’라고 하였으니, 공자가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라고 부연하고 있다.⁴⁴⁾ 이상익은 이를 근거로 조선 건국은 단순한 정치적 변동을 넘어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⁴⁵⁾

또한 세종은 즉위 원년에 가뭄이 들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신하들의 제언에 대해 성리학적인 명분론에 입각하여 불가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제후가 하늘에 제사함이 옳지 않음은 예(禮)에 있어 마땅한 것이니, 어찌 감히 지방이 수천 리가 된다 해서 천자의 예를 분수없이 행하리오”⁴⁶⁾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대의 논리에 따라 제천행사는 천자의 나라

44) 鄭道傳, 『三峰集』 第13卷, 朝鮮經國典 上.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MK&seojid=kc_mk_g004&gunchaid=&NodeId=&setid=111949(검색일 2010년 1월 25일). 『논어』에는 공자가 “만일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동주를 건설하겠다.”는 대목이 있다. 동주는 공자가 생각하기에 유교의 예악(禮樂) 질서가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된 시대이다. 따라서 정도전이 공자의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조선에 중화문명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5) 이상익, “주자학과 조선시대 정치사상의 정체성 문제”, 『한국철학논집』 제14집(2004), p. 77.

46) 『世宗實錄』, 세종 1년 6월 庚辰.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JO&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JO&jwid=kca_104&NodeId=jo_k-kca&setid=157066

인 중국만이 할 수 있으며, 제후 국가인 조선은 이를 시행할 수 없다는 성리학에 입각한 화이관념이 잘 드러난 대목이다.

화이사상에 기초한 성리학의 명분론이 조선에 미친 영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조선의 개국공신 가운데 한 명인 권근(權近)은 사신으로 명을 방문해 황제에게 24편의 시를 바치고 있는데, 도압록(渡鴨綠)이라는 제목의 시에서는 “황풍(皇風)은 중화와 동이를 구별하지 않는데”라며 화와 이의 구분을 내재화하고 있다.⁴⁷⁾ 이런 화이규범은 조선의 집권세력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도전은 “작은 나라가 대국을 모시는 것은 조공을 바치는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조공은 신하가 당연히 해야 할 일”⁴⁸⁾이라고 적고 있다. 또 태조 이성계는 위화도회군의 명분으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⁴⁹⁾는 이소역대(以小逆大)의 논리를 내세웠으며, 인조는 “재조지은(再造之恩: 왜란 당시 명이 조선을 도운 은혜)”의 논리에 따라 청과의 조공관계를 거부하게 된다. 이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등 두 차례에 걸친 전란을 야기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선은 두 차례에 걸친 전화에도 불구하고, 화이규범을 실천하기 위해 임진왜란 때 군사를 파견한 명의 신종과 마지막 황제인 의종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대보단(大報壇)을 설치하고 있다.

(검색일: 2010년 2월 8일).

47) 『太祖實錄』, 태조 7년 8월 辛酉.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JO&url=/itkcdb/text/titleListframe.jsp%3FbizName=JO%26jwId=%26moId=%26daId=%26NodeId=jo_k-kaa%26setid=1655072%26vipyunid=kaa_200(검색일: 2010년 1월 16일).

48) 정도전, 『朝鮮經國典』上, 國號. 鄭容和, “從周邊視覺來看朝貢關係”, 『國際政治研究』第1期(2006).

49) 『太祖實錄』總書,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JO&url=/itkcdb/text/titleListframe.jsp%3FbizName=JO%26jwId=%26moId=%26daId=%26NodeId=jo_k-kaa%26setid=1655072%26vipyunid=kaa_200(검색일: 2010년 1월 20일).

이처럼 조선 건국의 엘리트집단은 신유학의 화이규범을 완전히 내재화하여 조공체계에 완벽하게 편입하게 된다.⁵⁰⁾ 이런 편입은 조공체계가 단순한 제도 이상으로 유교적 이념을 내실 있고,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⁵¹⁾ 이로 인해 조공체계는 이 시기에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2) 조선과 명·청교체기의 조공체계

조선에 내재화된 화이유교규범은 17세기 전반 만주족인 청의 부상으로 크게 흔들리게 된다. 조선에 조공을 바쳐 왔던 만주족들은 조선이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북방에서 세력을 크게 키워 명을 위협하게 된다. 청은 명과의 패권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조선과 명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선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 1627년 정묘호란 당시 후금(청)은 명과의 관계 단절을 전제로 화평을 제의하면서 조선과는 형제의 나라가 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조는 명과의 관계 단절은 “대의에 관계된 것이니 단연코 허락할 수 없다”면서 화이규범에 기초한 명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조선은 정묘호란으로 후금과 형제의 관계를 맺게 됐지만, 청이 병선(兵船)을 요구하며 또다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자 인조는 전국에 유시문을 발표하고, “교활한 오랑캐의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맹약이 깨지게 됐다”며 청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냈다.⁵²⁾

또한 청은 조선과 맺은 ‘형제’의 관계를 명과 같이 ‘군신’의 관계로 전환

50) Peter Yun, “Confucian Ideology and the Tribute System in Choson-Ming Relations”, 『史叢』 제55호(2002).

51) 남궁근(1999), p.220.

52)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서울: 푸른역사, 2009), p.371.

하고, 조선에 조공을 바칠 것을 강요했다. 이에 대해 인조는 “우리나라는 전대부터 중국 조정을 섬겨 동번(東藩)이라 칭하면서 일찍이 강약과 성패를 가지고 신하의 절개를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청에 대해서는 “중국 조정을 신하로서 섬기고 한인을 공경스럽게 대하는 것은 곧 예에 있어서 당연한 것입니다. 무릇 한인이 하는 일을 어떻게 호령으로 금단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청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⁵³⁾ 그러나 1636년의 병자호란으로 인해 조선은 강제로 청과 군신의 관계를 맺으면서 청에 조공을 바치는 역(逆)조공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현실적인 역학관계의 변화는 곧바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규범으로 자리 잡았던 화이사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화이규범은 더 이상 조선과 청의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조선과 일본은 각각 스스로를 중화로 자처하는 화이변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소중화주의로 인해 청과의 조공관계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조선은 스스로를 중화로 자처하면서 조공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청과의 관계를 화이규범의 틀 속에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조선의 이런 노력은 명이 멸망하기 이전까지 명의 연호인 승정(崇禎)을 사용하고, 명 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대보단을 설치하는 한편 『존화록(尊華錄)』을 편찬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1704년 명이 멸망한 지 60년이 되는 해에 숙종은 명의 의종황제에 대한 제사를

53) 『仁祖實錄』, 인조 14년 6월 17일 庚寅,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JO&url=/itkcdb/text/titleListIframe.jsp%3FbizName=JO%26jwId=%26moId=%26daId=%26NodeId=jo_k-kpa%26setid=2058734%26vipyunid=kpa_000(검색일: 2010년 1월 22일).

지내면서 제문을 통해 “조선국왕 신(臣) 이돈은 감히 대명 의종황제에게 밝게 고합니다. 빛나는 황명이 화이(華夷)의 주인이 되어 공덕이 융성하였으며, 온 천하를 널리 소유하였습니다. [……] 이제 여기에 제단을 만들고 몸소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예문(禮文)에는 없으나 의리에 있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⁵⁴⁾라며 화이규범이 여전히 조선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숙종의 이날 제사는 화이규범의 또 다른 변형으로 볼 수 있는데, 즉 천자인 명 황제에 대한 제사를 제후인 조선의 왕이 지낼 수 없다는 화이유교규범에 저촉됐지만, 의리로서 충분히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에 의해 극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⁵⁾

또한 19세기 후반 중화사상을 토대로 서양의 침략을 막아내려는 노력의 한 형태는 『존화록』의 편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은 화이규범이 조선에서 변화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존화록』의 서문을 작성한 홍승운은 “중화를 존중하고, 이적을 물리치는 일은 춘추의 뜻이다. 그러나 중화는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존중하는 것이고, 이적은 물리치지 않을 수 없어서 물리치는 것이다”⁵⁶⁾라고 적고 있다. 또한 『존화록』의 편찬과 관련하여 정옥자는 “일본 및 서양의 합리화 논리인 개화론을 부정하고 조선은 이미 문명국이고 조선만이 보존하고 있는 유교윤리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⁵⁷⁾

화이규범의 이런 변화 현상은 당시 사신으로 청을 방문한 조선인들의

54) 『肅宗實錄』, 숙종 30년 3월 甲申.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JO&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JO&jwId=ksb_106&NodeId=jo_k-ksb&setid=138858\(검색일 2010년 1월 25일\)](http://db.itkc.or.kr/index.jsp?bizName=JO&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JO&jwId=ksb_106&NodeId=jo_k-ksb&setid=138858(검색일 2010년 1월 25일)).

55) 정옥자(1998), p.97.

56) 『존화록(尊華錄)』序, 정옥자, 『조선 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p.189에서 재인용.

57) 정옥자(1998), p.208.

연행록에서도 잘 드러난다. 특히 조선 사신들이 남긴 조공의 기록들은 명의 시기에는 초천록(朝天錄)이라는 제목으로 남아있지만, 청의 시기에는 연행록(燕行錄)이라고 명명해 청을 중화로 인식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들 연행록에는 발전된 청의 문물을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그들을 여전히 오랑캐라는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어 화이규범이 조선에서는 국내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창업(金昌業)은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에서 한인과 만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병부상서와 시랑 두 명이 동쪽 월랑 계단 위에 와 앉았다. 상서는 청인으로 몸이 작고 눈에 정채가 있는데, 행동거지는 경솔하였고, 오른쪽에 앉은 시랑은 한인이었는데, 용모와 거동이 단연 뛰어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위엄이 있었으며, 가벼이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왼쪽에 앉은 시랑은 용모가 보통인데, 청인이라고 하였다”⁵⁸⁾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조선에서 실학파의 등장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조선중화주의에 근거해 청의 문물을 평가하는 경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실학파로 알려진 박지원은 “우리나라가 명을 섬긴지 2백 년 동안 충성을 한결같이 하여 이름은 비록 속국이라 하나 실상은 한 나라나 다름없고 [……] 온 인민의 머리를 깎아서 모두 되놈으로 만들었은즉. 비록 우리나라만 이런 수치를 면하였지만, 그 중국을 위하여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으려 하는 마음이야 어찌 하루 사이인들 잊을 수 있었으랴. 그리고 우리나라 사대부들이 『춘추』 존(尊)·양(攘)의 이론을 일삼는 이가 군데군데 우뚝 서서 백 년을 하루같이 즐기치게 잇달렸으니 가히 장한 일이라 이르겠다”

58)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1713년 1월 22일, 최소자·정혜중·송미령(편), 『18세기 연행록과 중국사회』(서울: 혜안, 2007), p.201에서 재인용.

고 기록하고 있다.⁵⁹⁾ 청을 오랑캐로 여기고, 중화문명을 복원하기 위해 조선이 노력해야 한다는 박지원의 인식은 변화된 화이규범이 조선에서 여전히 국내규범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조선과 청의 조공관계는 규범이 작동하기보다 서로 정치적,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

5. 맺음말: 동아시아 국제규범의 변화

조공체계가 14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에서 유교가 국제규범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유교의 위계적 질서관을 받아들인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조공체계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은 중국의 다른 주변 국가들과 달리 화이유교규범에 기초하여 조공체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재화한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⁶⁰⁾

그러나 화이유교규범은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정통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여전히 이를 국내규범으로 삼아 조공을 제외한 다른 관계에서 청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행위 기준으로 삼았다. 이처

59) 朴趾源, 『熱河日記』, 駟迅隨筆, 가을 7월 15일 辛卯,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MK&seojid=kc_mk_h008&guncHaId=&NodeId=&setid=2088638(검색일: 2010년 1월 22일).

60) Benjamin I. Schwartz, "The Chinese Perception of World Order, Past and Present", J. K. Fairbank(ed.),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276.

럼 정통성을 상실한 화이규범은 동아시아지역에 근대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주권규범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완전히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한 가지 남은 의문은 조선이 화이규범에 기초해 스스로를 중화로 자처하고, 명의 연호를 사용하면서, 명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청이 묵인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에서는 청이 중국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⁶¹⁾ 화이규범의 위계질서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했던 오랑캐인 청이 조선의 이런 태도를 묵인하게 된 배경은 청이 화이규범을 받아들인 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화이규범을 유지했던 조선의 대외인식은 서양의 개항 요구에 대해 청보다 훨씬 쇄국적으로 대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19세기 청과 조선의 외교정책을 분석한 라이트(M. Wright)는 당시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으며, 청은 조선에 비해 서양의 도전에 대해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⁶²⁾ 이는 근대시기 서양에서 유래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화이규범이 조선과 청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진전된 연구가 필요한 대목으로 생각된다.

논문 접수일 2009.12.28.

심사 완료일 2010.01.25.

61) 정옥자(1998); 한명기(2009).

62) Mary C. Wright(1958), p.363.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Asia and Change of Confucian Norm _Choson and Tribute System during Transition of Ming-Qing Dynasty

Shin, Bongsu

Reserch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Institute, Korea University

International norms seems to change over time through their "life-cycle", that is, emergence, diffusion and decline. But we do not fully understand how and why they evolve as they do. Scholars studying of norm change respectively explain the reason based on evolutionary approach and legitimacy approach. The former made draw an analogy of between genes and norms, but the latter was dependent on a need for international legitimation.

While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have been explored by tributary system based on old-age Confucian ideology, that is, the distinction between *hua*(Chinese)-*yi*(Barbarian), this paper based on the research outcome of norms change explore how the change of *Hua-yi* norm has influenced over the tributary system. For this,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of 17th Century tributary system during transition of *Ming-Qing* dynasty based on legitimacy approach.

- Keywords

norm, tributary system, Confucianism, *Tian-xia*, China, Choson